

미국 '코로나19 희망' 첫 백신 배포 시작

미시간주 화이자공장서 트럭들 출발 16일까지 290만명 투여분...곧 접종 내년 1분기까지 1억명 접종 계획

미국의 코로나19 대유행을 억제할 희망인 코로나19 백신의 배포가 13일(현지시간) 시작했다.

CNN방송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시간주 포티지에 있는 제약회사 화이자의 공장에서 첫 백신을 실은 트럭이 이날 오전 공장을 출발했다. 앞서 미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11일 화이자-바이오엔테크의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을 승인했고,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예방접종자문위원회(AICP)도 12일 사용 권고 결정을 내렸다.

공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직원들은 이날 오전 6시 30분께 드라이아이스를 이용해 첫 선적분을 포장하기 시작했다. 첫 포장분이 트럭에 실리자 직원들은 박수를 쳤다. 이어 오전 8시29분 백신을 실은 3대의 트럭이 픽업트럭 등에 타고 방탄복을 입은 보안요원의 호위를 받으며 공장을 떠났다. 189개 백신 용기에 실려 공장을 출발한 첫 백신 출하분은 14일까지 항공기 등을 이용해 미 전역으로 옮겨진다. 이날 오후와 14일에도 이 공장에서 생산된 백신이 추가로 출하된다.

이들 최초 백신은 64곳의 주(州)와 미국령, 주요 대도시, 그리고 5개 연방기관으로 배송된다. 지역별 물량은 각 주의 성인 인구를 기준으로 할당됐다. 구체적으로 14일 145곳을 시작으로, 15일 425곳, 16일 66곳 등 영하 70도의 온도에서 보관될 수 있는 유통센터로 배달되고, 3주 내 투여될 수 있도록 추가 지정된 백신접종소로 옮겨진다. 1차로 배포된 백신은 약 290만 명에게 투여할 수 있는 분량으로, 주별 결정사항이 있지만 의사, 간호사 등 보건종사자와 요양원 거주자와 직원이 우선



미국 캔터키주 루이빌의 '루이빌 무하마드 알리 국제공항'에서 13일(현지시간) 물류업체인 UPS 직원들이 수송기로 배송돼 온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컨테이너를 하역하고 있다. 화이자 미시간 공장에서 생산된 코로나19 백신 290만 명분은 이날부터 16일까지 미전역에 배포되며 이르면 14일부터 접종이 시작된다. /연합뉴스

접종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접종장소까지 백신이 도착하면 14일부터 긴급 접종이 바로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스티브 한 FDA 국장은 이날 CNN에 출연해 이르면 14일 백신이 처음으로 투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것(접종)이 매우 신속하게, 내일 일어나기 바라는 게 내 희망"이라고 말했다.

몬세프 슬라위 백악관 백신개발 책임자는 포스뉴스에 나와 내년 1분기까지 1억명의 미국인이 백신을 접종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의 백신 접종은 지난 1월 20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1개월, 대유행이 시작된 3월 중순 이후 9개월 만이다. 미국은 현재 감염자 1천600만명, 사망자 3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전 세계에서 확산이 가장 심한 국가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261〉 요추

요추(姚樞, 1202-1279)는 하남성 낙양 사람으로 자는 공무고 호는 설제다. 몽고의 쿠빌라이를 도와 대원제국 건국에 크게 공헌했다.

쿠빌라이의 초청으로 본격적으로 산동 지방을 위해 일했다. 1256년 즉위한 현종 몽케는 동생 쿠빌라이를 막남한지(莫南漢地) 대총독으로 임명해 북중국 관리를 위임했다. 북중국 정복에는 성공했지만 식량과 물자 공급에 애를 먹었다. 참모 요추의 건의에 따라 하남과 섬서 지역에 둔전(屯田) 설치를 몽케에게 건의했다. 이를 통해 중국내 강력한 지배 기반을 만들려는 계획에 큰 도움이 되었다. 몽케는 동생에게 개봉 주변과 서안 중 하나를 새 영지로 제안했다. 요추는 서안이 관중 평야에 가깝

대응하지 말고 몽고 조정의 중신들과 왕족을 잘 설득하도록 건의했다. 쿠빌라이는 직접 몽고의 수도 카라코룸으로 상경해 형에게 신종을 굳게 맹세했고 이로써 형제간의 갈등이 해소되었다.

1260년 대간이 된 쿠빌라이에게 산동 지방의 이단이 반란을 일으켰다. 소금과 구리 등으로 재력이 풍부한 이단의 반역을 사천택 등의 분전으로 진압했다. 부재상인 왕문통의 딸이 이간의 부인으로 사위가 반란을 일으키자 이에 연루되었다. 요추와 두목 등 한인 관료들은 왕문통과 그의 아들들을 처형토록 요구했다. 쿠빌라이는 그들을 처형했고 위법 행위는 낱낱이 신민들에게 공개되었다.

농업 장려를 위해 권농사(勸農司)가 설치되었고 요추는 대사농(大司農)으로 취임했다. 반세기에 걸친 전란으로

쿠빌라이 도와 대원제국 건국에 공헌

고 인구도 상대적으로 적다며 서안을 영지로 받도록 건의했다.

쿠빌라이가 남송 정벌에 앞서 대리 원정에 나서자 이를 수행했다. 징기스칸의 장수인 수베타이의 아들 우랑카타이가 근략 면에서 큰 공을 세웠지만 큰 실상 없이 대리국을 정복하는데 요추의 역할이 컸다. 점령지의 인명과 재물을 박멸하는 도성(屠城)을 억제해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건진 것은 요추의 간언 덕으로 사서에는 기록되어 있다. 그는 쿠빌라이에게 조빈(趙彬)의 일화를 이야기했다. 975년 송태조 조광윤은 장군 조빈에게 남경 정복의 명을 내렸다. 조빈은 도중에 폐병을 부러 부하들이 약탈하지 않고 주민을 죽이지 않는다고 맹세하면 자신의 병이 치유될 것이라고 말해 큰 살생 없이 정벌을 마무리 지었다. 쿠빌라이가 이를 수용해 종전의 중앙아시아 원정과는 달리 큰 실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대리국의 재상 고태상을 죽였지만 그의 가족들은 사면되었고 이후 중국식 교육을 받으며 차별받지 않았다.

중국 정벌을 둘러싸고 몽케와 쿠빌라이 사이에 갈등이 커졌다. 몽케는 감사단을 보내 불법 행위, 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쿠빌라이의 참모들을 처형했다. 쿠빌라이가 형에게 반기를 들면 골육상쟁으로 이어져 결국 쿠빌라이의 패배로 끝났을 것이다. 요추는 경솔하게

북중국의 토지가 크게 훼손되었고 생산량도 격감했다. 사천택과 함께 몽고의 사법 체계를 정비했다. 몽고는 북중국을 점령하자 여진족의 금 왕조 법령을 계승하였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었다. 중국 신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법령을 제정하게 되었다. 특히 사형집행 등 가혹하고 보복적 성격의 처형 방식을 최대한 지양했다. 송나라 때의 흑형 등을 폐지할 것을 건의했다. 1262년에는 공정의 음악과 춤의 부활을 제안했다. 유병충이 구체적인 실무 작업을 담당해 1271년까지 유교식 궁정 음악과 춤이 정착되었다. 담당 기구인 태상예의원(太常禮儀院)도 설치했다.

쿠빌라이의 차남인 진금(眞金)의 중국식 교육을 두목과 함께 담당하기도 했다. 쿠빌라이에게 복속 이후 발전해 온 신유학(新儒學)을 소개했다. 중국 통치를 위해 필요성을 느낀 쿠빌라이도 적극적으로 신 유학자 집단을 포용했다. 허형(許衡)은 대표적인 학자로 1267년 국가제주(國子祭酒)에 임명되었다.

요추는 유학자로서 송대의 정주이학(程朱理學)의 계승과 전파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양유종과 함께 태극서원을 보내 불법 행위, 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쿠빌라이의 참모들을 처형했다. 1279년 사망했는데 사후 시호는 문헌배로 끝났을 것이다. 요추는 경솔하게

일본 최근 일주일 새 신규확진 1만7천여명...정부 굵은 대응에 여론 악화

스가 내각 지지율 한달만에 17%P 급락

일본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면서 스가 요시히데 내각의 지지율은 급락했다. 경기 부양책인 '고투 캠페인'(Go To Campaign)을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일본 정부는 '조용 중'이라며 여전히 굵은 반응을 보인다.

14일 NHK에 따르면 전날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오후 8시 25분 현재 2388명이 새로 확인됐다. 이에 따

라 일본의 누적 확진자는 18만1342명으로 늘었다. 사망자는 19명 증가해 2614명이 됐다. 중증 확진자는 583명으로 늘어 역대 최고 기록을 또 경신했다.

일본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6일 연속 2000 명을 넘었다. 13일까지 최근 일주일 동안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1만7694명이다. 직전 일주일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2천311명(15.0%) 확대한 것이다. 지난달 중순에는 확진자가 일주일에 1만4천 명 정도 증가했는데 이후 증가 속도가 계속 빨라지는 양상이다.

여행장려 정책인 '고투 트래블'(Go To Travel)을 전

면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오사카시와 삿포로시를 목적지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계속 시행 중이다.

일본 정부가 방역보다 경기 활성화를 중시하는 정책을 계속하면서 여론의 반발은 커지고 있다. 마이니치(毎日)신문과 사회조사연구소가 1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스가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 조사 때보다 17% 포인트 떨어진 40%를 기록했다.

응답자의 62%가 스가 내각의 코로나19 대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14%만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연합뉴스

에스와티니 총리 사망...세계 각국 정상들 코로나 고초

아프리카 남부 에스와티니(옛 스와질란드) 왕국의 총리가 코로나19에 걸려 숨지는 등 세계 각국 지도자들도 대유행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암브로세 들라미니(52) 에스와티니 총리가 3일(현지시간) 오후 코로나19로 사망했다고 AFP,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들라미니 총리는 지난달 1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1일부터 이웃 국가인 남아프리카공

화국의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확진 약 한 달 만에 숨졌다.

아프리카 북부 알제리에서는 코로나19에 확진됐던 대통령 이 두 달 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들라미니 총리와 테본 대통령 외에도 세계 주요 선진국인 영국과 미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코로나19로 위중한 상태까지 이르렀다. 국가 지도자 중 처음으로 3월 27일 코로나19에 걸린 존슨 총리는 열흘 뒤인 4월 6일 상태가 심각해져 중환자실로 옮겨지기도 했다. 존슨 총리는 확진 한 달 만인 4월 27일 업무에 복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월 2일 코로나19에 걸려 월터 리드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 후안 오를란도 에르난데스 온두라스 대통령, 자니네 아녜스 볼리비아 임시 대통령, 알레한드로 잠마테이 과테말라 대통령 등도 코로나19에 걸렸다가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연합뉴스

이진 장편소설

허균, 불의 향기

한글 문학의 뛰어난 성취인 '홍길동전'의 작가 허균 그에 대한 헌사가 소설 '허균, 불의 향기'로 피어나다.

역사적 사료 이면에 드리워진 진실을 이진 작가는 특유의 방식으로 탐색하고 풀어낸다.

출판사 : 국학자료원 새미(주) 02-442-4623

- 작가의 말
"허균과 함께 한 지난 몇 년은 참으로 충만했다. 넓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졌다. '사람들이 내 시를 보면 이것은 허균의 시다라고 말해주면 좋겠다'던 허균의 당당한 바람까지도 나의 것이 되었다. 이젠 그 충만감을 다른 이들과 나눌 때가 된 듯하다. 혼자만 누리기에 그가 너무 크다."

- 추천사
"휘몰아치는 강렬한 서사,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탁월한 이미지, 영롱하게 반짝이는 시적인 문장, 소름 돋는 전율에 취해 눈을 떼지 못하고 읽어내렸다. 조선이 버린 인물 허균이 이 소설을 통해 21C 대한민국에서 새롭게 탄생한다. 이름을 부르면 금방이라도 달려올 것 같은 생동감 넘치는 인물들과 함께."
- 함진원 시인

조선 최고의 여성 시인이자 조선 최초 합류를 일으킨 주인공 허남설현 슬프고도 아름다운 일생이 그녀의 몸종의 시선으로 그려지다.

소설 '하늘 꽃 한 송이, 너는'(북치는 마을)은 스물일곱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천재 시인 허남설현을 오늘 시대에 새롭게 되살려낸다.

소설가이자 문학박사. 목포대 강사와 광주여대 교수 역임.
소설 집 : '창', '알레그로 마에스토소', '꿈지를 위한 방법 서설'
장편소설 : '하늘 꽃 한 송이, 너는', '허균, 불의 향기' 등

저자 이진